

##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다 (출애굽기 34:10-28)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참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사단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항상 사단에게 무차별로 당하게 된다. 그런데 언약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답을 세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 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여하튼 언약을 잡고 고백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잡고 바란다.

니가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면 이 민족들을 쫓아낼것이라고 하셨다. 노력을 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면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이야기이다. 노력이 아니고 이것을 니 마음에 지키면, 이것을 바깥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지키면 내가 너의 대적을 쫓아내고 지켜주겠다는 것이 언약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모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답이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게 답이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역사 일어난다. 전 세계, 지금 현재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믿는 사람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다 주셨다. 그러니 나중에 심판 때에 지금 이 이야기, 언약이 말씀이 기준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언약대로 되는 것이다.

모세 시대의 대표적인 언약은 그날 저녁 해방되던 어린양의 피와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답이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광야를 통과하여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기적과 응답을 보게 된다. 광야는 누구든지 거기 있으면 며칠만에 죽게 된다. 그런데 언약잡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가나안으로 가면 40년이고 400년이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성경으로 가르쳐주신 것이다.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다. 응답을 해주시라고 기도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 안해도 언약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광야도 필요 없다. 광야는 우리 인생과 많이 비교되는 단어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 그 언약이 딱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유와 상관 없이 안가면 그러면 안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어도 가기로 하면 광야를 통과할 응답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 생각에 걸려서 안된다든지, 믿음에 걸려서 안된다든지 이유는 필요 없다. 무조건 안가면 응답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못가게 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지옥갔다고 볼수는 없다. 여하튼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려야 한다. 그런 축복은 못 누렸다는 것이다. 가기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이런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부활 메시지 4개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부활 메시지 4개는 오늘의 가나안이다. 무조건 거기를 향하여 가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응답을 누려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으면 가지 뭐하러 가만히 있겠는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날 저녁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걸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런데 열명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대표들인데 너무나 딱 맞는 소리를 해서 온 백성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딱 맞는 소리보다는 믿음의 소리가 더 필요하다. 이치에 맞는 소리는 그 다음에 해야 한다. 먼저 믿음의 소리, 언약의 소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하나?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소리 할 것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긍정적인 소리 해야 한다. 하자. 해보자. 기도하자. 이런거 해야 한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바보 되면 안된다. 237은 절대 바뀌지 않는 답인데 왜 바보같은 일을 하겠는가? 가자 가지 말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무조건 가야 한다. 이 언약은 너무나 선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언약을 향해서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것이다. 광야를 능히, 누구든지 죽어야 할 광야를 통과할 기적과 응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한 것 하나하나도 일상생활 중에서도 237에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언약을 잡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래야 나도 축복을 받고 내 후손도 축복을 받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언약의 응답이 오는 것이 언

약의 여정이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237이 언약되기 바란다. 마음에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 1.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전반부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였다. 후반부 18절부터는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은 오늘 본문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단을 따라가지 말고 내 언약을 지켜라. 10절에 보면 내가 그 어떤 백성에게도 행하지 않은 기적을 네 앞에 행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것을 행할 것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참 놀랍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내 대적을 쫓아내신다. 대적을 쫓아내려고 내가 싸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 혹은 원수 같은 것이 있으면 경제가 내 원수인데, 원수되는 경제를 쫓아내고 축복의 경제로 바꿔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언약을 잡아라. 원수는 사단인데 소리를 지르면 목만 아프다. 언약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백성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니 인생의 울무가 될거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사단을 숭배하기에 영적으로 엷어지 말라는 것이다. 13절에는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과 주상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라고 했다. 모든 우상을 깨뜨려라.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음란하게 행할까 함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일단 남자들에게 주었다고 봐야 한다. 남성 중심 사회라.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길때에 이스라엘 남자를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술마시고 놀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15절에는 니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에 동참하게 할까 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7절, 너는 그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니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는 우순은 짓 하지 말라. 전체적으로 너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불신자들이라고 할수 있다. 불신자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엷어져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너는 그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건져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금 달랐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다. 노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인간을 다 죽이셨다. 그 정도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다.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고 음란하였기 때문에 그냥 둘수 없어 다 죽이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다. 모든 사람, 짐승, 새 다 죽였다. 그렇게 해서 내 땅을 깨끗이 정화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절대 너희는 귀신과 상관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국에도 우상 많이 있다. 그 당시처럼 뭘 만들어서 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그런것보다는 더 교묘하게, 예를 들면 사상, 물질 우상이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다. 그 문화 속에 있는 우상들, 귀신, 정치 속에서도 많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2 바벨탑 운동같은것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고 잘 분별하여 그들과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조심해야 하고 나를 언약으로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상숭배 안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이 뭔지 딱 나오게 되어 있다. 이번 주간에 그 우상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 2. 네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18절에 보면 너는 아빔월 해의 첫달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맛이 없다. 그때 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날 저녁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날을 잊지 말고, 그날 저녁 그 언약의 피, 어린양의 피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 잊지 않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 이 언약의 피를 잊

지 않고 계속하는 작업을 하면 언약이 되는 것이다. 내게 언약으로 들어오면 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고 자신감 자부심이 들어온다.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관찮아. 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억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날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답이 되어진 것이다. 19절에는 모든 초태생, 수컷은 다 내것이라고 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다. 20절에는 나귀의 첫새끼는 반드시 어린양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속한다는 것은 나귀의 첫새끼를 위해서 어린양 한 마리를 죽임으로 이 새끼를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싫으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누가 나귀를 죽이겠는가? 어린양 한 마리로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지. 그런데 왜 다른 짐승에게는 안하고 나귀에만 했는가? 이것이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것은 이미 만세전에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나귀를 특별히 구분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다른 주제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니 장자도 대속하라고 하셨다. 너의 장자가 내 앞에 살기 원하면 대신 양을 죽여서 제사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양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발갈때나 거둘때나 그 때도 지키라고 했다.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정말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멀리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깊은 차이가 난다. 주일을 확실히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반쯤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다.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려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빨리 드리는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침에 7시나 9시에 예배드리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 멀리 보면 손해이다. 그 날을 보면 이익이지만.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데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그 모든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일찍이 예배드리고 가서 예배드려서 돈은 많은데 건강이 이상해지면 돈도 다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중요한 날에도 지키라고 한 것이다. 22절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였다. 맥추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이다. 너의 밭에서 드린 첫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다. 본래는 전부다 내것이다. 니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만드냐는 것이다. 지금 농사 안 짓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은 인생 전체를 다 드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것만 가져가시는 것이다. 십의 하나만 가져가신다. 감사하다. 나머지 아홉 개는 너 먹어라. 그리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연말에는. 한 해동안 농사지은 것을 가을 걷이를 하는 것이 수장절이다. 그걸 이런 사상으로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이다. 23절에 보면 너희 남자는 매년 세 번씩 내 앞에 모이라고 하였다. 모든 남자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24절에는 너가 매년 내가 세 번씩 와서 예배드릴 때에 너의 땅을 넘보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와서 제사하라는 것이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사단도 니 땅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믿어라. 믿음을 고백해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이다. 25절에는 보면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같이 드리지 말라고 했다. 유교병은 보통 먹는 누룩이 들은 세상의 떡, 사람의 떡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무교병, 예수님의 몸과 함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이건 니 음식이 아니라 내 제물이라는 것이다. 니가 먹었지만 너 먹으라고 주는게 아니라 신앙고백이라는 것이다. 이 귀중한 언약의 예물을 니가 니 음식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였다. 몇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그 당시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한다. 그리고 아무리 짐승이지만 잔인하다. 새끼를 삼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게 인간인가? 그런 의미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고 난 후에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적으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했으니까 기록해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볼수 있도록 보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꺼내서 읽어보고 니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기록하라는 이유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거야. 만일 이것을 지키면 니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내가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줄 것이다. 니가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아무도 니 땅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언약 딱 지켜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세밀하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 아니까 그리스도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아는것만큼 들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세워주셨다. 감사하다. 없으면 누구든지 헤멘다. 그리고 헤메도 답도 없다. 죽어도 죽었지 답이 없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답을 딱

주었다. 그게 언약이다. 이걸 잡고 누리고 발버둥 쳐보면 안다. 이 언약대로 된다는 것을 안다. 나타나니까. 흑암 세력 넘어지라고 언약잡고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 너 이것을 기록해.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 딱 보관을 하고 있어. 한번씩 꺼내서 읽어봐. 그리고 너를 새롭게 하고 다시 언약으로 잡아.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이게 언약이다. 이걸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우리가 원한게 아니다. 모세가 원한것도 아니다. 앞에서 3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십계명에 모세가 글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쓰셨다. 그러면서 이게 내 언약이라고 하셨다. 내 약속이니까 이대로만 하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게 길인데, 응답을 달라고 자꾸만 다른 것을 하면 안된다. 이 언약이 내게 일변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응답을 위해 다른 것 하는 내게 일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 이것이 되어있어야 한다. 이게 출발이다.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다. 말씀이 내게 먼저 들어와서 그렇구나, 언약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 24도 좋고 깊은 기도도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 이사가야 7장 14절 잘 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은 난리가 났다. 북쪽에서 큰 나라 둘이 합하여 쳐들어 왔다. 그래서 이사를 보내어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하는데로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문제 해결해주겠다. 그런데 왕은 안구했다. 나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다. 참 놀랍고도 감사하다. 너무 죄송하다. 안한다는데, 자존심 상하게. 우리 같으면 안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다. 그리고 그 큰 나라가 쳐들어 왔는데도 예루살렘 정복을 못했다. 이사가 선지자가 준 말씀이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 때 역사 일어났다.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예언을 말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시대의 말씀도 동일하게 역사 일어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미 2천년 전의 말씀이 되었다. 상관 없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 7백년 후 일어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 항상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지금도 사단을 꺾고 정복한다. 이런 권세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이다. 언제 기록되었든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힘도 주신다. 이 축복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역사가 진짜 안 일어나면 숨통 터지는 것이다. 그런데 말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보혈이다.

우리가 사단을 숭배하지 않고 237 하면 역사 일어난다. 언약 잡고 237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것이 답이다. 그냥 그것을 하자는 사명이 아니다. 사명 되기 전에 먼저 답이다. 그러면 이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되어 지면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광야를 걸어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기적 속에서도 걸어가면 발은 아픈 것이다. 구름 기둥 불기둥 있어도 걸어가면 피곤하고 먼지도 일어난다. 그러나 필요 없고, 응답 오고 기적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이런 응답의 인생이 자꾸 되어 가는 것이다. 237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의 답이다. 불신자 포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주신 것이다. 불신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해세기가 성취될 것을 믿는다. 제자 일어날 것이다. 많은 다민족 제자, 렌트 제자, 일어난다고 나는 믿는다. 중요한 중직자 제자, 산업인 제자 일어난다고 믿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지교회 사역자 제자 일어나고 팀사역 전도 제자 일어난다고 믿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다. 그리고 특별히 치유가 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열몇명 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치유된다고 믿는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렌트 운동 일어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약속으로 주셨다. 그리고 237, 선교 일어나고 땅끝까지 가고 남미 끝까지 간다고 믿고 언약으로 잡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사명이 아니다. 사명은 다음이다. 답이다. 이 답이 들어와서 이런 237의 사람이 다 되기 바란다. 그러면 광야 필요 없다. 능히 통과할 응답과 기적이 있는 것이다. 이 주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